

흐르는거리

으스럼이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電車、自動車、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러워
가는 것일까? 定泊할 아무港口도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실고서, 안개속에 잠긴 거리는,

거리모퉁이 붉은 포스트상자를 붓잡고, 서슬라
면 모든 것이 흐르는속에 어렴푸시빛나는 街路
燈、꺼지지 않는것은 무슨象徵일까? 사랑하는동
무 박이여! 그리고 金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새로운날아침 우리 다시 情답게 손목을잡어
보세」 몇字 적어 포스트속에 떠러트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金徽章에 金탄추를 빼엿고 巨人
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配達夫、아침과 함께 즐
거운 來臨、

이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五月十二日.

흐르는 거리

으스럼히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러워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싣고서, 안개 속에 잠긴 거리는,

거리모퉁이 붉은 포스트상자를 붙잡고, 쫘을라
면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
등, 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상징일까? 사랑하는
동무 박이여! 그리고 김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
디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
보세」 몇 자 적어 포스트 속에 떨어트리고, 밤
을 새워 기다리면 금휘장에 금단추를 빼엿고 거
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내림(來臨),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5.12.